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22호 [루게 제23074호] 주제99 (2010)년 5월 2일 (일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로예술인들의 5.1절합동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에 즈음하여 1일 우리 나라 은하수관현악단과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의 5.1절 합동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로동계급을 비롯하여 우리의 근로인민모두를 나라의 주인으로, 혁명의 주체로 내세워 주시고 자주적인 참된 삶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5.1절을 맞는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김영춘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김정각동지를 비롯한 군대의 지휘성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장성택동지, 김영일동지, 김양건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의 책임간부들, 외무성 제1부상 강석주동지와 당, 정권기관, 무력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의 책임일꾼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의 일꾼들, 시내 근로자들이 음악회를 함께 보았다.

또한 우리 나라 주제 로씨야러방

특명전권대사 알레리 추히닌과 대사관의 공식외교관들이 음악회를 보았다.

우리 나라 《애국가》와 로씨야러방 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합창 《승리의 5월》, 《5월의 모스크바》, 녀성 합창 《산언덕의 노래》, 합창과 관현악 《〈아이디〉 행진곡》, 녀성독창과 합창 《비날론 삼천리》, 녀성 2중창 《축원》, 혼성 2중창 《푸니쿨리 푸니쿨라》, 《아평양》, 녀성독창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있는가》, 《피플새》, 《큰길에는》, 남성독창 《군관들》, 녀성 3중창 《여기가 내 사는 조국이어라》, 관현악과 합창 《로씨야전시가요환상곡》, 녀성 4중창 《사회주의 멋이라네》, 관현악 《천리마 달린다》,

《월렐렐렐》 서곡》, 혼성중창과 합창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등 두 나라 인민들속에서 널리 애창되고있는 명곡들과 세계명곡들, 빠벨 오브싼니꼬프단장이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호모의 정을 담아 이번에 새로 창작한 혼성 3중창과 합창 《그이 계시는 평양》이 울렸다.

두 나라의 인민배우, 공훈배우, 국제콩쿨수상자들을 비롯한 이름있는 지휘자, 연주자, 성악가들이 출연한 음악회는 높은 예술적기교와 훌륭한 형상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음악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합창으로 막을 내리였다.

음악회가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공을 축하하여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를 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날 빠벨 오브싼니꼬프단장을 비롯한 21세기관현악단의 지휘성원들과 주요배우들을 만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씨야 21세기 관현악단은 조선인민에 대한 친선의 정을 안고 여러차례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정열적인 공연활동을 벌임으로써 두 나라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시고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수반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20년 상해세계박람회 개막행사에 참가하고있는 마흐무드 아부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시는 선물은 4월 30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되였다.

##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 5.1절 120돐기념 중앙보고대회 진행

【신의주 5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 5.1절 120돐기념 중앙보고대회가 1일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묻혀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려는 경이적인 사변들을 련이어 마련해가는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5.1절을 맞는 근로자들의 기쁨과 행복이 대회장에 넘쳐흐르고 있었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이 땅위에 강성대국을 건설하자!》, 《당창건 65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공과로 맞이하자!》, 《전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 5.1절 만세!》 등의 구호판들과 선전화들이 세워져있었다.

김정일동지와 로두첼내각부총리, 김병팔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병주기 계공업상, 평안북도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책임일꾼들, 판계부문 일꾼들, 근로자, 로력혁신자들, 근로자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내각총리 김영일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대회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혁명의 붉은기울 높이 추켜들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강성대국 건설대전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고 당창건 65돐을 우리 조국역사에 특기할 혁명적대성공으로 맞이하는데 적극 기여할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대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데 적극 기여하자

모란봉구역 건설자들과 여러 단위 종업원들의 쉼기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제99 (2010)년 4월 22일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모란봉구역 건설자들과, 개선청년공원관리소, 개선청년공원총합식당, 개선빵집 종업원들의 쉼기모임이 4월 28일과 29일에 진행되였다.

모란봉구역 건설자들의 쉼기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무정신을 발휘하여 개선청년공원을 훌륭한 인민의 쉼터로 전면시키는 데서 공로를 세운 구역건설자들에게 보내신 감사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모란봉구역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진일의 보고에 이어 구역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현태, 평양시원림건설사업소 초급당비서 김기섭, 복색동 초급당비서 허정실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난 4월 22일 인민의 유원지로 새롭게 개건된 개선청년공원을 현지지도하시며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선적유회오락시설들과 봉사시설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며 공원의 건설정형과 운영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개선청년공원이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최상의 수준에서 개건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응당 할 일을 한 모란봉구역 건설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여 감사까지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그들은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들은 구역의 모든 일꾼들과 인민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개선청년공원개건공사에서 발휘한 투쟁기풍과 일본새로 거리와 마을, 일터를 사회주의선경으로 더 잘 꾸리며 인민의 리상을 꽃피우기 위한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선청년공원관리소 종업원들의 쉼기모임에서는 초급당비서 탁정남의 보고에 이어 지배인 김혁, 책임기사 박상영, 작업반장 리광필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공원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 잘 꾸리기 위한 방향과 방법을 밝혀주시고 개건공사를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개선청년공원이 현대적인 유회오락시설들과 양양봉사시설들을 갖춘 종합적인 문화휴식장소로 꾸려지게 된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개선청년공원을 찾으시어 불장식도 더 잘하고 유회오락시설들에 대한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원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관리소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유회오락시설들의 운영을 개선하며 기술기능수준을 높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사회주의 내 조국은 근로인민대중의 삶이 활짝 꽃피어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다.

당창건 65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전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 1절을 맞은 우리 인민들의 가슴마다에는 열화같은 감사의 정이 끓어 넘쳐흐른다.

이 땅위에 인민의 락원을 세우고 혁명의 존엄한 시기마다 대중의 무한한 힘을 발동하여 조국번영의 년대기를 수놓아오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의 사회주의 근로자들은 부강조국건설의 강위력한 전투대오를 이루고 운명과 미래를 확신성있게 개척해나갈 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주체사상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사람은 근로하는 인민대중입니다.》

5월 1일을 국제적명절로 기념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5. 1절과 더불어 전세계의 근로자들은 착취와 억압, 무권리를 반대하여 간고한 투쟁과 단결의 역사를 줄기차게 엮어왔다.

반만년민족사의 숙원이고 리상인 강성대국의 눈부신 현실이 시시각각 다가오고있는 오늘 우리 인민은 주체의 사회주의 내 조국이야말로 근로자들의 행복과 삶이 가장 아름답게 꽃피어나는 리상사회라고 온 세상이 소리지르며 자랑한다.

돌이켜보면 근로대중은 역사의 창조자이면서도 오랜 세월 역사속에 서있었으며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 되어왔다.

착취계급의 치부의 수단, 말하는

# 부강조국건설의 강위력한 전투대오로

《도구》에 불과하였던 근로대중을 이 세상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역사상의 주인으로 내세워 주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근로대중의 운명을 그들의 손에 쥐어주고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새시대를 열어준 찬란한 빛바람이었다.

지혜와 근면성으로 세상의 온갖 재부들을 창조해내는 우리 인민, 가장 높은 존엄을 누리려 할 사람들이 침략과 연속의 죄사슬에 얽혀서 신음하는것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주체사상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사람은 근로하는 인민대중입니다.》

5월 1일을 국제적명절로 기념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5. 1절과 더불어 전세계의 근로자들은 착취와 억압, 무권리를 반대하여 간고한 투쟁과 단결의 역사를 줄기차게 엮어왔다.

반만년민족사의 숙원이고 리상인 강성대국의 눈부신 현실이 시시각각 다가오고있는 오늘 우리 인민은 주체의 사회주의 내 조국이야말로 근로자들의 행복과 삶이 가장 아름답게 꽃피어나는 리상사회라고 온 세상이 소리지르며 자랑한다.

돌이켜보면 근로대중은 역사의 창조자이면서도 오랜 세월 역사속에 서있었으며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 되어왔다.

착취계급의 치부의 수단, 말하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처럼 그날 혁명의 투사들은 필승의 신심으로 얼마나 심장을 뜨겁게 불태웠던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안아오신 조국해방의 력사적사변과 더불어 우리 인민은 나라의 주인, 공장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 되었고 그때부터 5. 1절은 승리의 명절로, 궁지 높은 날로 상대히 경축되었다.

지금도 귀기울이면 우리의 로동자, 농민들이 새 조국건설의 나날을 목청껏 부르던 노래 《승리의 5월》의 장엄한 선율이 생생히 들려오는 듯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년대마다 우리 인민과 함께 5. 1절을 기념하시며 그들의 혁명적열정과 기백을 더욱 북돋아주시었다.

해방조국에서 처음으로 맞는 5월 1일, 5. 1절기념 평양시군중대회에 참석하시어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며 그들을 새 조국건설로 불러 일으키신 우리 수령님, 거머쥔 철권 전 쉼의 나날에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5. 1절에 즈음 하오》를 하달하시어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을 전승의 길로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이시다.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목청껏 터지던 5. 1절의 환호성들은 절세의 위인을 모신 무한한 행복과 영광을 만천하에 파시하는 힘찬 메아리였다.

세기적비약과 기적을 창조해온 우리 조국의 년대기마다에서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인민사이의 혼연일체의 정은 얼마나 뜨겁게 흘렀던가.

공장과 농촌을 뒤없이 찾으신 평범한 로동자, 농민들과 나라 일도 의논하시고 자력경쟁의 혁명 정신을 심어주시며 그들의 심장에 혁명의 불, 투쟁의 불을 활활 지펴 주신 우리 수령님,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 땅에는 진실속의 친리마가 나뉘지 않았고 혁명적대고조의 력사가 펼쳐졌다.

강선에서 6만능력의 분과업인에서 12만의 강편을, 김철에서 19만(능력의) 제철설비에서 27만의 선철을 생산할 때 기양과 덕적에서는 단 수십일만에 트랙터도 자동차를 만들었다.

당과 수령의 요구라면 물과 불속에서도 숨쉬고 뛰어드는 우리 인민의 불타는 열정은 기증기, 굴착기, 대형양수기, 전기기관차, 산소분리기 등 자력경쟁의 창조물들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오는 창조와 변혁의 길로 안내했다.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이어 2012년을 향하여 파강히 전진하는 오늘 충진군대오의 혁명적열정과 기세는 하늘에 닿았다.

선군조선은 위대한 수령의 품에서만 근로대중의 운명과 미래가 빛나게 개척된다는 철의 진리를 새겨놓아 이어 확증하는 궁지높은 나라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손길아래 영웅조선, 친리마조선의 주인공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한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이 회세의 선군정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서 강성대국건설자로 위용을 과시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 된 지난해 5. 1절경축행사의 나날들을 우리 인민은 지금도 커다란 감격속에 추억하고있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 펼쳐나신 우리 로동계급을 위하여 태양절에 터쳐올렸던 축포를 5. 1절에 또 터쳐올리자고, 강선과 황철, 세령과 안주, 온릉에서 1만 5 000 명의 로동자들이 평양에 올라와 축포도 보고 연희상도 받게 하자고, 그동안 로동계급이 수고가 많았는데 이번엔 크게 축하해주자고 하신 우리 장군님,

로동계급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과 혁명가극 《꽃은 처녀》공연도 관람하시고 깊은 밤에도 로동계급의 요구처럼 물과 불속에서도 숨쉬고 뛰어드는 우리 인민의 불타는 열정은 기증기, 굴착기, 대형양수기, 전기기관차, 산소분리기 등 자력경쟁의 창조물들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오는 창조와 변혁의 길로 안내했다.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이어 2012년을 향하여 파강히 전진하는 오늘 충진군대오의 혁명적열정과 기세는 하늘에 닿았다.

선군조선은 위대한 수령의 품에서만 근로대중의 운명과 미래가 빛나게 개척된다는 철의 진리를 새겨놓아 이어 확증하는 궁지높은 나라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손길아래 영웅조선, 친리마조선의 주인공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한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이 회세의 선군정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서 강성대국건설자로 위용을 과시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 된 지난해 5. 1절경축행사의 나날들을 우리 인민은 지금도 커다란 감격속에 추억하고있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 펼쳐나신 우리 로동계급을 위하여 태양절에 터쳐올렸던 축포를 5. 1절에 또 터쳐올리자고, 강선과 황철, 세령과 안주, 온릉에서 1만 5 000 명의 로동자들이 평양에 올라와 축포도 보고 연희상도 받게 하자고, 그동안 로동계급이 수고가 많았는데 이번엔 크게 축하해주자고 하신 우리 장군님,

로동계급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과 혁명가극 《꽃은 처녀》공연도 관람하시고 깊은 밤에도 로동계급의 요구처럼 물과 불속에서도 숨쉬고 뛰어드는 우리 인민의 불타는 열정은 기증기, 굴착기, 대형양수기, 전기기관차, 산소분리기 등 자력경쟁의 창조물들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오는 창조와 변혁의 길로 안내했다.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이어 2012년을 향하여 파강히 전진하는 오늘 충진군대오의 혁명적열정과 기세는 하늘에 닿았다.

선군조선은 위대한 수령의 품에서만 근로대중의 운명과 미래가 빛나게 개척된다는 철의 진리를 새겨놓아 이어 확증하는 궁지높은 나라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손길아래 영웅조선, 친리마조선의 주인공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한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이 회세의 선군정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서 강성대국건설자로 위용을 과시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 된 지난해 5. 1절경축행사의 나날들을 우리 인민은 지금도 커다란 감격속에 추억하고있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 펼쳐나신 우리 로동계급을 위하여 태양절에 터쳐올렸던 축포를 5. 1절에 또 터쳐올리자고, 강선과 황철, 세령과 안주, 온릉에서 1만 5 000 명의 로동자들이 평양에 올라와 축포도 보고 연희상도 받게 하자고, 그동안 로동계급이 수고가 많았는데 이번엔 크게 축하해주자고 하신 우리 장군님,

로동계급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과 혁명가극 《꽃은 처녀》공연도 관람하시고 깊은 밤에도 로동계급의 요구처럼 물과 불속에서도 숨쉬고 뛰어드는 우리 인민의 불타는 열정은 기증기, 굴착기, 대형양수기, 전기기관차, 산소분리기 등 자력경쟁의 창조물들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오는 창조와 변혁의 길로 안내했다.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이어 2012년을 향하여 파강히 전진하는 오늘 충진군대오의 혁명적열정과 기세는 하늘에 닿았다.

선군조선은 위대한 수령의 품에서만 근로대중의 운명과 미래가 빛나게 개척된다는 철의 진리를 새겨놓아 이어 확증하는 궁지높은 나라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손길아래 영웅조선, 친리마조선의 주인공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한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이 회세의 선군정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서 강성대국건설자로 위용을 과시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 된 지난해 5. 1절경축행사의 나날들을 우리 인민은 지금도 커다란 감격속에 추억하고있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 펼쳐나신 우리 로동계급을 위하여 태양절에 터쳐올렸던 축포를 5. 1절에 또 터쳐올리자고, 강선과 황철, 세령과 안주, 온릉에서 1만 5 000 명의 로동자들이 평양에 올라와 축포도 보고 연희상도 받게 하자고, 그동안 로동계급이 수고가 많았는데 이번엔 크게 축하해주자고 하신 우리 장군님,

로동계급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과 혁명가극 《꽃은 처녀》공연도 관람하시고 깊은 밤에도 로동계급의 요구처럼 물과 불속에서도 숨쉬고 뛰어드는 우리 인민의 불타는 열정은 기증기, 굴착기, 대형양수기, 전기기관차, 산소분리기 등 자력경쟁의 창조물들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오는 창조와 변혁의 길로 안내했다.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이어 2012년을 향하여 파강히 전진하는 오늘 충진군대오의 혁명적열정과 기세는 하늘에 닿았다.

선군조선은 위대한 수령의 품에서만 근로대중의 운명과 미래가 빛나게 개척된다는 철의 진리를 새겨놓아 이어 확증하는 궁지높은 나라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근로대중의 운명을 그들의 손에 쥐어주고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새시대를 열어준 찬란한 빛바람이었다.

지혜와 근면성으로 세상의 온갖 재부들을 창조해내는 우리 인민, 가장 높은 존엄을 누리려 할 사람들이 침략과 연속의 죄사슬에 얽혀서 신음하는것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주체사상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사람은 근로하는 인민대중입니다.》

5월 1일을 국제적명절로 기념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5. 1절과 더불어 전세계의 근로자들은 착취와 억압, 무권리를 반대하여 간고한 투쟁과 단결의 역사를 줄기차게 엮어왔다.

반만년민족사의 숙원이고 리상인 강성대국의 눈부신 현실이 시시각각 다가오고있는 오늘 우리 인민은 주체의 사회주의 내 조국이야말로 근로자들의 행복과 삶이 가장 아름답게 꽃피어나는 리상사회라고 온 세상이 소리지르며 자랑한다.

돌이켜보면 근로대중은 역사의 창조자이면서도 오랜 세월 역사속에 서있었으며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 되어왔다.

착취계급의 치부의 수단, 말하는

말하는

에 거어 포함할 열화같은 충정이 용암마당 끓어번진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찾아오시어 기업소활성화의 방도를 찾아주시었다고, 그이께서 다녀가신 후 농장의 영농작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고, 장군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어 이제는 앞이 탁 트인다는 가슴후련한 목소리들이 현지지도단원들마다에서 끓어올라나온다.

불철주야의 눈보라맹공, 삼복철강행군을 단행하시며 온 나라를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고무추동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는 력사가 밀찌러 앞지 못하는 위대한 번영의 새시대를 열었다.

《광명성2호》의 성과적발사, 성강의 주체철과 대중의 주체화실현, CNC기술의 패권쟁취, 폭포처럼 쏟아지는 비발란, 날을 따라 늘어나는 사회주의선경들과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도처에서 솟아나는 격동적인 현실...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부, 장군부 이 있기에 우리 근로자들의 영예와 보람이 그토록 빛나고 이 땅우에는 바야흐로 강성대국의 대문이 열릴 력사의 시각이 다가오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5. 1절을 맞으며 온 나라 인민이 다시금 심장에 굳게 간직한 신념이며 락관이다.

절세의 위인들의 품에서 자라난 불의 혁명무력과 함께 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당에 충직한 근로자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최후승리는 우리의것이다.

창조의 대전에서 부르는 선군정장의 손길따라 로동계급이여, 인민이여, 더 용감히, 더 드세치게 비약하자! 본사기자 백 룡

당과 국가간부들

각지 근로자들과 함께 5. 1절을 기념

【평양 5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전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 1절 120국을 당과 국가간부들이 각지 근로자들과 함께 뜻깊게 기념하였다.

김영일동지,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 양형실동지와 김영태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내각과 성, 중앙대양상,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자들이 락연회합기업소, 국가과학원, 천

리마제강련합기업소, 김중태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사리원시 미곡련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 나가 명절을 맞는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을 축하해주었다.

당과 국가간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대양상,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자들이 락연회합기업소, 국가과학원, 천

리마제강련합기업소, 김중태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사리원시 미곡련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 나가 명절을 맞는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을 축하해주었다.

당과 국가간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대양상,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자들이 락연회합기업소, 국가과학원, 천

리마제강련합기업소, 김중태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사리원시 미곡련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 나가 명절을 맞는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을 축하해주었다.

당과 국가간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대양상,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자들이 락연회합기업소, 국가과학원, 천

리마제강련합기업소, 김중태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사리원시 미곡련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 나가 명절을 맞는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을 축하해주었다.

당과 국가간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대양상,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자들이 락연회합기업소, 국가과학원, 천

리마제강련합기업소, 김중태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사리원시 미곡련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 나가 명절을 맞는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을 축하해주었다.

당과 국가간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대양상,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자들이 락연회합기업소, 국가과학원, 천

리마제강련합기업소, 김중태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사리원시 미곡련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 나가 명절을 맞는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을 축하해주었다.

당과 국가간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대양상,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자들이 락연회합기업소, 국가과학원, 천

리마제강련합기업소, 김중태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사리원시 미곡련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 나가 명절을 맞는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을 축하해주었다.

당과 국가간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대양상,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자들이 락연회합기업소, 국가과학원, 천

리마제강련합기업소, 김중태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사리원시 미곡련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 나가 명절을 맞는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을 축하해주었다.

당과 국가간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대양상,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자들이 락연회합기업소, 국가과학원, 천

리마제강련합기업소, 김중태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사리원시 미곡련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 나가 명절을 맞는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을 축하해주었다.

당과 국가간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대양상,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자들이 락연회합기업소, 국가과학원, 천

리마제강련합기업소, 김중태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사리원시 미곡련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 나가 명절을 맞는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을 축하해주었다.

당과 국가간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대양상,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자들이 락연회합기업소, 국가과학원, 천

리마제강련합기업소, 김중태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사리원시 미곡련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 나가 명절을 맞는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을 축하해주었다.

당과 국가간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대양상,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자들이 락연회합기업소, 국가과학원, 천

리마제강련합기업소, 김중태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사리원시 미곡련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 나가 명절을 맞는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을 축하해주었다.

당과 국가간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대양상,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자들이 락연회합기업소, 국가과학원, 천

리마제강련합기업소, 김중태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사리원시 미곡련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 나가 명절을 맞는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을 축하해주었다.

당과 국가간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대양상,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자들이 락연회합기업소, 국가과학원, 천

리마제강련합기업소, 김중태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사리원시 미곡련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 나가 명절을 맞는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을 축하해주었다.

당과 국가간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대양상,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자들이 락연회합기업소, 국가과학원, 천

리마제강련합기업소, 김중태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사리원시 미곡련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 나가 명절을 맞는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을 축하해주었다.

당과 국가간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대양상,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자들이 락연회합기업소, 국가과학원, 천

리마제강련합기업소, 김중태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사리원시 미곡련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 나가 명절을 맞는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을 축하해주었다.

당과 국가간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대양상,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자들이 락연회합기업소, 국가과학원, 천

리마제강련합기업소, 김중태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사리원시 미곡련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 나가 명절을 맞는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을 축하해주었다.

당과 국가간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대양상,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자들이 락연회합기업소, 국가과학원, 천

리마제강련합기업소, 김중태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사리원시 미곡련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 나가 명절을 맞는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을 축하해주었다.

당과 국가간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대양상,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자들이 락연회합기업소, 국가과학원, 천

리마제강련합기업소, 김중태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사리원시 미곡련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 나가 명절을 맞는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을 축하해주었다.

당과 국가간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대양상,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자들이 락연회합기업소, 국가과학원, 천

리마제강련합기업소, 김중태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사리원시 미곡련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 나가 명절을 맞는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을 축하해주었다.

당과 국가간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대양상,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자들이 락연회합기업소, 국가과학원, 천

리마제강련합기업소, 김중태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사리원시 미곡련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 나가 명절을 맞는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을 축하해주었다.

당과 국가간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대양상,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자들이 락연회합기업소, 국가과학원, 천

리마제강련합기업소, 김중태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사리원시 미곡련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 나가 명절을 맞는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을 축하해주었다.

당과 국가간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대양상,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자들이 락연회합기업소, 국가과학원, 천

리마제강련합기업소, 김중태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사리원시 미곡련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 나가 명절을 맞는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을 축하해주었다.

당과 국가간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대양상,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자들이 락연회합기업소, 국가과학원, 천

## 심오한 사색과 탐구로 이어진 길

어버이수령님께서 뒤없이 이어가신 현지지도의 길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의 길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수령님은 위인으로서의 천품을 타고난 위대한분이라는 것을 더욱더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됩니다.》

인생에 거는 장군님께서 한 일군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를 수행하면서 조국의 방방곡곡을 많이 다녀보았는 데 그때마다 생각되는것이 무엇이었는가고 물으시었다.

일군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그 머나먼 길들을 끊임없는 관찰과 분석, 사색과 탐구로 이어가신다. 조국밖 어디에 가신다 산과 들, 공장과 농촌의 구석구석까지 살펴보시며 거기에서 무엇인가 인민들을 위한 중요한 문제들을 포착하십니다 라고 정중히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는 옳다고 하시며 어서 계속하라고 이르시었다.

순간 일군의 뇌리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품목을 보여 주는 가지가지의 화폭들이 주렁주렁 피어났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어느날 아름다운 바다기슭을 눈여겨 살피신적이 있었는데 얼마후 그곳에 근로자들을 위한 휴양소가 생겨난 일이며 또 어느날에

는 먼길을 달려시다가 차를 세우시고 바람을 쐬시려는듯 골짜기를 돌아보시었는데 후날 거기에 염소떼와 양떼가 흐르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진 일...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말씀드리는데 일군의 가슴은 질로 후두위를 뒀다.

그러는 일군을 한동안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동무가 지금까지 헛걸음을 하지 않았다고 하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산책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수령님의 산책길은 어느 한순간의 휴식을 위한 길이 아니라 심오한 사색과 탐구로 이어지는 위대한 창조자의 길입니다.

그러한 산책길에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킬 새로운 방침이 나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걸으시는 자욱자욱은 한나라도 인민들을 위하시는 심오한 사색의 걸음, 위대한 창조의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령님의 걸음새를 닮자, 이것이 오늘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의 모든 일군들에게 하고싶은 말씀입니다. ...

위대한 수령님의 이인위천의 거룩한 자욱을 이어 이 땅우에 이어 인민의 리상사회인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시려는 백두령정의 철의길은 신념과 의지가 빛나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이었다.

본사기자 리성국

## 당과 국가간부들 각지 근로자들과 함께 5. 1절을 기념

【평양 5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전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 1절 120국을 당과 국가간부들이 각지 근로자들과 함께 뜻깊게 기념하였다.

김영일동지,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 양형실동지와 김영태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내각과 성, 중앙대양상,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자들이 락연회합기업소, 국가과학원, 천

리마제강련합기업소, 김중태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사리원시 미곡련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 나가 명절을 맞는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을 축하해주었다.

당과 국가간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대양상,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자들이 락연회합기업소, 국가과학원, 천

리마제강련합기업소, 김중태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사리원시 미곡련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 나가 명절을 맞는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을 축하해주었다.

당과 국가간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

# 김일성조선의 강성번영을 위한 대고조진군에서 사회주의근로자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떨치자

##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내각총리 김일동지의 보고

동지들!  
오늘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평등과라 전당, 전군, 전민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사에 특기할 대번혁의 해, 인민의 행복이 활짝 꽃피어나는 번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총동원전을 과감히 벌려 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전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연대성 5.1절 120돐을 기념하고있습니다.

5.1절은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있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비롯한 우리 근로자들의 혁명적기상을 단방에 떨치며 자부심과 결속을 마르고 인민의 투쟁자로서의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투쟁하는 전세계 근로자들과의 국제적연대성과 단결을 과시하는 뜻깊은 명절입니다.

5.1절 120돐을 맞아 오직 반제자주의 기치를 들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사회주의를 쟁취하는 전세계 근로자들에게 전투적인사과 같은 연대성을 보냅니다.

선군조선의 사회주의근로자로서의 크나큰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넘쳐 5.1절을 맞이하는 온 나라 전체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평등자를 혁명의 전투에 높이 모시고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 온 자랑스런 투쟁정신을 감회없이 떨쳐보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평등과라 강성대국건설과 선군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역세게 싸워 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동지들!  
조선혁명은 튼튼없이 간고하고 험난하였으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어 우리 근로자들은 자주와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자기의 숭고한 자주권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왔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로동계급과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발동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광범한 군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우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시어 오직 그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의 나날 일제와의 끊임없는 혈전을 벌리는 속에서도 5.1절을 뜻깊게 기념하도록 하시어 해방후 첫째

5.1절기념 평양시군중대회에 친히 참석하시고 새 조선의 하늘가에 노래 《승리의 5월》이 힘차게 울려 퍼지도록 하십시오. 우리 근로자들을 새 조국건설의 빛나는 승리로 고무해주시었습니다.

언제나 근로인민대중을 믿고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진중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어 천리마운동의 불길을 지켜주시고 청산리농민들속에 계시며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하신것을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의 매시기, 매 단계마다 우리 근로자들이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위훈을 떨치도록 뜻깊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한편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속에 계시면서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여섯한 역군으로 키워주시고 그들에게 값높은 삶을 안겨주시며 조국방어를 위한 사회주의적 사투리를 우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사회주의를 힘있게 추진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 선군조선의 무궁한 번영과 더불어 천추 만대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근로자들을 나라의 주인, 사회의 주인, 혁명의 주인으로 내세우시고 근로인민대중의 창조력과 단결된 힘을 의지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업은 배두의 선군평등이시며 회색의 정치선으로인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의하여 빛나게 계속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획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는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우리 혁명의 전투에 서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적정치로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주시어 오직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시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백방으로 강화하셨습니다.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대국건설에서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하시며 주체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선군혁명평등의 나날 주체적관점에서 5.1절을 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로 기념하도록 하시어 《전세계근로자들은 단결하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어 새 세계 혁명의 군중적지반을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주시어 로동계급과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이 시대와 혁명에 지닌 자기

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근로자들을 주체사상, 선군사상과 혁명적선진성을 체질화한 참다운 선군혁명투사로 키워주시어 온 나라에 강계정신이 차넘치고 성당의 불화, 나라의 부화가 세차해 오도록 하시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 건설을 위하여 애국적대고조를 열어제끼기 위한 애국적대고조를 제시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력사적인 12월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화를 지켜주시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근로자들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가도록 불리일으킨 특기할 사본으로 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무한대한 정력과 불멸불후의 평등로 150일전투와 100일전투를 전두지휘하시며 대고조의 첫번째 시간대를 변이 난 해, 인민의 모든 리상이 실현되는 전환의 해로 빛내어주시는데 이어 올해에도 최첨발전진성과 대고조진군을 비롯하여 대고조진군을 이끌어 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업은 온 나라에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셨습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평등로 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근로자들은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조선혁명의 격동적인 년대들을 불멸의 위훈으로 빛내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압력속에서 민족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투성을 굳건히 수호하며 사회주의길로 힘차게 전진하여온 우리 인민의 투쟁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었습니다.

선군혁명의 준엄한 폭풍우를 헤쳐나가는 투쟁속에서 사상과 신념의 강자,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라 자라난 우리의 로동계급과 농민 근로자들, 지식인들은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굳게 뭉쳐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견결하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거창한 시대를 펼쳐놓았습니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의 성과적발사와 제2차 지하핵시험의 성공, 주체생생산체계의 완성과 우리 식 CNC기술의 첨단돌파를 비롯하여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승리의 포성들이 강산에 울리니 주체사상 비바람이 폭포처럼 쏟아져 천만민을 끝없는 기쁨과 환희로 설레이게 한 것이적인 현실은 절세의 위인, 위대한 선군평등을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정신력과 창조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금 뚜렷

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전세계근로자들의 혁명적명절인 5.1절 120돐을 기념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온 나라 근로자들의 열화같은 흥도와 불같은 열정을 담아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영원불멸한 업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려 선군의 기치높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평등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앞에는 당의 전투적소를 받들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진을 일으키며 사회주의강성대국을 하루하루 건설하고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 무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르고있습니다.

위대한 평등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당의 부름따라 전당, 전군, 전민이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투지를 안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림으로써 2012년까지 기어오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고 선군조선의 준엄과 위력을 높이 떨쳐야 합니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평등적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생명이며 수령님의 혁명적선과 불굴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어 나 가려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

한 의지입니다.

전체 근로자들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휘몰아쳐도 혁명과 건설을 오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수령님대로 해나가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할 열정을 쌓아올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려 선군의 기치높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평등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앞에는 당의 전투적소를 받들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진을 일으키며 사회주의강성대국을 하루하루 건설하고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 무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르고있습니다.

위대한 평등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당의 부름따라 전당, 전군, 전민이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투지를 안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림으로써 2012년까지 기어오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고 선군조선의 준엄과 위력을 높이 떨쳐야 합니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평등적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생명이며 수령님의 혁명적선과 불굴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어 나 가려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

한 의지입니다.

전체 근로자들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휘몰아쳐도 혁명과 건설을 오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수령님대로 해나가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할 열정을 쌓아올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려 선군의 기치높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평등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앞에는 당의 전투적소를 받들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진을 일으키며 사회주의강성대국을 하루하루 건설하고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 무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르고있습니다.

위대한 평등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당의 부름따라 전당, 전군, 전민이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투지를 안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림으로써 2012년까지 기어오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고 선군조선의 준엄과 위력을 높이 떨쳐야 합니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평등적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생명이며 수령님의 혁명적선과 불굴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어 나 가려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

한 의지입니다.

전체 근로자들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휘몰아쳐도 혁명과 건설을 오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수령님대로 해나가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할 열정을 쌓아올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려 선군의 기치높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평등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앞에는 당의 전투적소를 받들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진을 일으키며 사회주의강성대국을 하루하루 건설하고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 무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르고있습니다.

위대한 평등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당의 부름따라 전당, 전군, 전민이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투지를 안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림으로써 2012년까지 기어오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고 선군조선의 준엄과 위력을 높이 떨쳐야 합니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평등적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생명이며 수령님의 혁명적선과 불굴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어 나 가려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

한 의지입니다.



### 산림보호사업을 군중적으로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밑천이다. 나라의 산림자원을 적극 늘리자면 산에 나무를 많이 심고자 할때 산림보호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위대한 평등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산림을 보호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산밭을 철저히 막는것입니다.》

나라의 귀중한 자원인 산림을 적극 보호하는 것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계절적으로 산밭이 날수 있는 시기인 요즘 산밭막이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

산밭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우자면 국토환경보호 부문 일군들과 산림감독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일군들과 산림감독원들은 당창건 구원의 산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광범한 대중에게 산림보호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있게 해설선전하여 그들이 이 사업에 자각적으로 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산밭막이대책과 홍보체제를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

산림감독원들은 현지일군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산밭감시원, 산밭순시원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이 산밭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그들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밭막이대책을 다시한번 살피고도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산밭이 발생하면 제때에 끝수 있도록 군중동원체제를 면밀하게 세워야 한다.

산밭막이도 군중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산림을 애호하는것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공민적의무이다.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 땅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아끼고 사랑하는데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누구든지 산에 오를 때 인화성물질을 가지고가지 말아야 하며 산을 가까이 한 곳에서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산밭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열렬한 조국애, 항도애를 안고 산밭을 막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산림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 압록강에 첫 때를 띄웠다

#### 121호립업연합기업소에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키기 위한 총진군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국의 복원을 감동아호르는 압록강에 올해의 첫 때가 내렸다.

위대한 평등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림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립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립업부문의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지난 4월 30일 아침 봄기운이 약동하는 압록강류역사업소 동종작업소 물동에는 121호립업연합기업소 일군들과 노동자들, 그 가족들이 모였다. 오전 9시 출발을 알리는 신호와 함께 수문이 열리며 첫 때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라고있었다. 류별봉들의 열광마디에는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공동사업과 공동구호의 선진적과업관철을 자기들이 맡은 임무와 책임을 다할 굳은 결의가 넘쳐있었다.

일제기 리명수물들을 찾아온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물결에 의한 통나무부수기를 널리 장려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가슴깊이 새긴 류별봉들은 더 많은 통나무를 하루빨리 사재추진장소로 보내어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 결의로 가슴 벅차우며 맑은 일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었다.

121호립업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립업사업소들의 노동자들은 정초부터 드세한 공작전을 벌려 통나무부수장과 물결정리작업에서 변일 헌신을 일사오. 립업기업소 지체인, 기사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모두 현지에서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 기술혁신을 중심고리로 들어질 때

선교편직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에서 공장의 몇가지 생산설비들을 기술개조할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일부 일군들은 공장의 기술력만으로 그것을 해낼수 있을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그렇지만 고하였다.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어있는 대환기들을 놓고보아도 생산에서 제일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설비였기 때문이다. 대환기를 정상가동시키려면 여러가지 부족품들을 기술개조하여야 하였다. 하기에 일부 사람들은 전문기계공장들에게 맡기자는 생각이 일어났었다.

《생산자대중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조성을 적극 발휘하면 그들속에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과 열의가 나올수 있으며 경공업의 현대화를 빠른 속도로 추진시킬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편직물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한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는 회의

### 지방원료를 적극 리용하여

#### 신교종이공장에서

다. 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봄과 가을이면 공업원에서 수확을 하여 립지를 정리하면서 많은 황철나무무들을 심고있다. 공장에서서는 해당 기관과의 연계밑에 나무무밭도 잘 꾸러 나무무원료를 적극 확보하고 있다. 빨리 자라는 황철나무를 원료로 하여 종이생산은 정상화되고있다.

공장에서서는 종이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설비개조에 힘을 넣고있다. 특히 새콤을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그 리용률을 높이고 생산공정에 물리화학공정을 설치하여 원료수 허실을 현상 없애었다. 작업반장들과 수리공들은

### 많은 흙보산비료를 생산

#### 김책시 방학협동농장에서

로생산에서 앞장섰다. 이 곳 작업반원들은 흙보산비료미더기가 높아야 푸대기가 높아진다는것을 명심하고 원료준비와 생산에서 집단적헌신을 일으키고있다. 제3작업반의 도법을 따라 많은 작업반들에서도 흙보산비료생산을 일제적계획로 다그쳐 성과를 거두고 있다.

뜻깊은 올해의 경농사에 서 좋은 결실을 맺을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보다 고 열처리한 이들의 더 높은 흙보산비료생산설비적 오로 고있다.

《이것은 올해의 경농사에 서 좋은 결실을 맺을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보다 고 열처리한 이들의 더 높은 흙보산비료생산설비적 오로 고있다.》

《이것은 올해의 경농사에 서 좋은 결실을 맺을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보다 고 열처리한 이들의 더 높은 흙보산비료생산설비적 오로 고있다.》

《이것은 올해의 경농사에 서 좋은 결실을 맺을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보다 고 열처리한 이들의 더 높은 흙보산비료생산설비적 오로 고있다.》

《이것은 올해의 경농사에 서 좋은 결실을 맺을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보다 고 열처리한 이들의 더 높은 흙보산비료생산설비적 오로 고있다.》

《이것은 올해의 경농사에 서 좋은 결실을 맺을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보다 고 열처리한 이들의 더 높은 흙보산비료생산설비적 오로 고있다.》

### 많은 흙보산비료를 생산

#### 김책시 방학협동농장에서

로생산에서 앞장섰다. 이 곳 작업반원들은 흙보산비료미더기가 높아야 푸대기가 높아진다는것을 명심하고 원료준비와 생산에서 집단적헌신을 일으키고있다. 제3작업반의 도법을 따라 많은 작업반들에서도 흙보산비료생산을 일제적계획로 다그쳐 성과를 거두고 있다.

뜻깊은 올해의 경농사에 서 좋은 결실을 맺을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보다 고 열처리한 이들의 더 높은 흙보산비료생산설비적 오로 고있다.

《이것은 올해의 경농사에 서 좋은 결실을 맺을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보다 고 열처리한 이들의 더 높은 흙보산비료생산설비적 오로 고있다.》

《이것은 올해의 경농사에 서 좋은 결실을 맺을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보다 고 열처리한 이들의 더 높은 흙보산비료생산설비적 오로 고있다.》

《이것은 올해의 경농사에 서 좋은 결실을 맺을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보다 고 열처리한 이들의 더 높은 흙보산비료생산설비적 오로 고있다.》

《이것은 올해의 경농사에 서 좋은 결실을 맺을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보다 고 열처리한 이들의 더 높은 흙보산비료생산설비적 오로 고있다.》

《이것은 올해의 경농사에 서 좋은 결실을 맺을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보다 고 열처리한 이들의 더 높은 흙보산비료생산설비적 오로 고있다.》

### 많은 흙보산비료를 생산

#### 김책시 방학협동농장에서

로생산에서 앞장섰다. 이 곳 작업반원들은 흙보산비료미더기가 높아야 푸대기가 높아진다는것을 명심하고 원료준비와 생산에서 집단적헌신을 일으키고있다. 제3작업반의 도법을 따라 많은 작업반들에서도 흙보산비료생산을 일제적계획로 다그쳐 성과를 거두고 있다.

뜻깊은 올해의 경농사에 서 좋은 결실을 맺을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보다 고 열처리한 이들의 더 높은 흙보산비료생산설비적 오로 고있다.

《이것은 올해의 경농사에 서 좋은 결실을 맺을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보다 고 열처리한 이들의 더 높은 흙보산비료생산설비적 오로 고있다.》

《이것은 올해의 경농사에 서 좋은 결실을 맺을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보다 고 열처리한 이들의 더 높은 흙보산비료생산설비적 오로 고있다.》

《이것은 올해의 경농사에 서 좋은 결실을 맺을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보다 고 열처리한 이들의 더 높은 흙보산비료생산설비적 오로 고있다.》

《이것은 올해의 경농사에 서 좋은 결실을 맺을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보다 고 열처리한 이들의 더 높은 흙보산비료생산설비적 오로 고있다.》

《이것은 올해의 경농사에 서 좋은 결실을 맺을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보다 고 열처리한 이들의 더 높은 흙보산비료생산설비적 오로 고있다.》

를 찾지 못해 애를 먹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때 초급당 일군과 지배인을 비롯한 공작기계공장을 찾아가 경험도 배우고 하면서 부분품을 자체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대한국의 실용기술자를 기술훈조할 때에도 공장참모부의 일군들은 기술자들에게 들어가 제기되는 창작적인 의견들을 적극 지지해주었으며 어렵고 힘든 고비마다 어깨를 들이밀고 도와주면서 그들이 많은 기술개조사업을 끝까지 내밀수 있게끔 해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보이러를 기술개조하여 전기를 적게 쓰면서도 제품생산량을 높이고 야 하였다. 그런데 전문기계공장이 아닌 편직공장에서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그 부분들은 차례로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이렇듯 높은 기술혁신작업에 대한 높은 열의와 애를 쏟은 공작기계공장의 일군들은 그 부분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의 정확한 합계비율을 찾지 못해 애를 먹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때 초급당 일군과 지배인을 비롯한 공작기계공장을 찾아가 경험도 배우고 하면서 부분품을 자체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대한국의 실용기술자를 기술훈조할 때에도 공장참모부의 일군들은 기술자들에게 들어가 제기되는 창작적인 의견들을 적극 지지해주었으며 어렵고 힘든 고비마다 어깨를 들이밀고 도와주면서 그들이 많은 기술개조사업을 끝까지 내밀수 있게끔 해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보이러를 기술개조하여 전기를 적게 쓰면서도 제품생산량을 높이고 야 하였다. 그런데 전문기계공장이 아닌 편직공장에서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그 부분들은 차례로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이렇듯 높은 기술혁신작업에 대한 높은 열의와 애를 쏟은 공작기계공장의 일군들은 그 부분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의 정확한 합계비율을 찾지 못해 애를 먹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때 초급당 일군과 지배인을 비롯한 공작기계공장을 찾아가 경험도 배우고 하면서 부분품을 자체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대한국의 실용기술자를 기술훈조할 때에도 공장참모부의 일군들은 기술자들에게 들어가 제기되는 창작적인 의견들을 적극 지지해주었으며 어렵고 힘든 고비마다 어깨를 들이밀고 도와주면서 그들이 많은 기술개조사업을 끝까지 내밀수 있게끔 해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보이러를 기술개조하여 전기를 적게 쓰면서도 제품생산량을 높이고 야 하였다. 그런데 전문기계공장이 아닌 편직공장에서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그 부분들은 차례로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이렇듯 높은 기술혁신작업에 대한 높은 열의와 애를 쏟은 공작기계공장의 일군들은 그 부분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의 정확한 합계비율을 찾지 못해 애를 먹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때 초급당 일군과 지배인을 비롯한 공작기계공장을 찾아가 경험도 배우고 하면서 부분품을 자체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대한국의 실용기술자를 기술훈조할 때에도 공장참모부의 일군들은 기술자들에게 들어가 제기되는 창작적인 의견들을 적극 지지해주었으며 어렵고 힘든 고비마다 어깨를 들이밀고 도와주면서 그들이 많은 기술개조사업을 끝까지 내밀수 있게끔 해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보이러를 기술개조하여 전기를 적게 쓰면서도 제품생산량을 높이고 야 하였다. 그런데 전문기계공장이 아닌 편직공장에서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그 부분들은 차례로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이렇듯 높은 기술혁신작업에 대한 높은 열의와 애를 쏟은 공작기계공장의 일군들은 그 부분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의 정확한 합계비율을 찾지 못해 애를 먹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때 초급당 일군과 지배인을 비롯한 공작기계공장을 찾아가 경험도 배우고 하면서 부분품을 자체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대한국의 실용기술자를 기술훈조할 때에도 공장참모부의 일군들은 기술자들에게 들어가 제기되는 창작적인 의견들을 적극 지지해주었으며 어렵고 힘든 고비마다 어깨를 들이밀고 도와주면서 그들이 많은 기술개조사업을 끝까지 내밀수 있게끔 해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보이러를 기술개조하여 전기를 적게 쓰면서도 제품생산량을 높이고 야 하였다. 그런데 전문기계공장이 아닌 편직공장에서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그 부분들은 차례로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이렇듯 높은 기술혁신작업에 대한 높은 열의와 애를 쏟은 공작기계공장의 일군들은 그 부분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의 정확한 합계비율을 찾지 못해 애를 먹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때 초급당 일군과 지배인을 비롯한 공작기계공장을 찾아가 경험도 배우고 하면서 부분품을 자체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대한국의 실용기술자를 기술훈조할 때에도 공장참모부의 일군들은 기술자들에게 들어가 제기되는 창작적인 의견들을 적극 지지해주었으며 어렵고 힘든 고비마다 어깨를 들이밀고 도와주면서 그들이 많은 기술개조사업을 끝까지 내밀수 있게끔 해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보이러를 기술개조하여 전기를 적게 쓰면서도 제품생산량을 높이고 야 하였다. 그런데 전문기계공장이 아닌 편직공장에서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그 부분들은 차례로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이렇듯 높은 기술혁신작업에 대한 높은 열의와 애를 쏟은 공작기계공장의 일군들은 그 부분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의 정확한 합계비율을 찾지 못해 애를 먹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때 초급당 일군과 지배인을 비롯한 공작기계공장을 찾아가 경험도 배우고 하면서 부분품을 자체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대한국의 실용기술자를 기술훈조할 때에도 공장참모부의 일군들은 기술자들에게 들어가 제기되는 창작적인 의견들을 적극 지지해주었으며 어렵고 힘든 고비마다 어깨를 들이밀고 도와주면서 그들이 많은 기술개조사업을 끝까지 내밀수 있게끔 해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보이러를 기술개조하여 전기를 적게 쓰면서도 제품생산량을 높이고 야 하였다. 그런데 전문기계공장이 아닌 편직공장에서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그 부분들은 차례로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이렇듯 높은 기술혁신작업에 대한 높은 열의와 애를 쏟은 공작기계공장의 일군들은 그 부분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의 정확한 합계비율을 찾지 못해 애를 먹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때 초급당 일군과 지배인을 비롯한 공작기계공장을 찾아가 경험도 배우고 하면서 부분품을 자체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대한국의 실용기술자를 기술훈조할 때에도 공장참모부의 일군들은 기술자들에게 들어가 제기되는 창작적인 의견들을 적극 지지해주었으며 어렵고 힘든 고비마다 어깨를 들이밀고 도와주면서 그들이 많은 기술개조사업을 끝까지 내밀수 있게끔 해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보이러를 기술개조하여 전기를 적게 쓰면서도 제품생산량을 높이고 야 하였다. 그런데 전문기계공장이 아닌 편직공장에서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그 부분들은 차례로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이렇듯 높은 기술혁신작업에 대한 높은 열의와 애를 쏟은 공작기계공장의 일군들은 그 부분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의 정확한 합계비율을 찾지 못해 애를 먹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때 초급당 일군과 지배인을 비롯한 공작기계공장을 찾아가 경험도 배우고 하면서 부분품을 자체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대한국의 실용기술자를 기술훈조할 때에도 공장참모부의 일군들은 기술자들에게 들어가 제기되는 창작적인 의견들을 적극 지지해주었으며 어렵고 힘든 고비마다 어깨를 들이밀고 도와주면서 그들이 많은 기술개조사업을 끝까지 내밀수 있게끔 해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보이러를 기술개조하여 전기를 적게 쓰면서도 제품생산량을 높이고 야 하였다. 그런데 전문기계공장이 아닌 편직공장에서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그 부분들은 차례로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이렇듯 높은 기술혁신작업에 대한 높은 열의와 애를 쏟은 공작기계공장의 일군들은 그 부분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의 정확한 합계비율을 찾지 못해 애를 먹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때 초급당 일군과 지배인을 비롯한 공작기계공장을 찾아가 경험도 배우고 하면서 부분품을 자체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대한국의 실용기술자를 기술훈조할 때에도 공장참모부의 일군들은 기술자들에게 들어가 제기되는 창작적인 의견들을 적극 지지해주었으며 어렵고 힘든 고비마다 어깨를 들이밀고 도와주면서 그들이 많은 기술개조사업을 끝까지 내밀수 있게끔 해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보이러를 기술개조하여 전기를 적게 쓰면서도 제품생산량을 높이고 야 하였다. 그런데 전문기계공장이 아닌 편직공장에서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그 부분들은 차례로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이렇듯 높은 기술혁신작업에 대한 높은 열의와 애를 쏟은 공작기계공장의 일군들은 그 부분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의 정확한 합계비율을 찾지 못해 애를 먹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때 초급당 일군과 지배인을 비롯한 공작기계공장을 찾아가 경험도 배우고 하면서 부분품을 자체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대한국의 실용기술자를 기술훈조할 때에도 공장참모부의 일군들은 기술자들에게 들어가 제기되는 창작적인 의견들을 적극 지지해주었으며 어렵고 힘든 고비마다 어깨를 들이밀고 도와주면서 그들이 많은 기술개조사업을 끝까지 내밀수 있게끔 해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보이러를 기술개조하여 전기를 적게 쓰면서도 제품생산량을 높이고 야 하였다. 그런데 전문기계공장이 아닌 편직공장에서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그 부분들은 차례로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이렇듯 높은 기술혁신작업에 대한 높은 열의와 애를 쏟은 공작기계공장의 일군들은 그 부분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의 정확한 합계비율을 찾지 못해 애를 먹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때 초급당 일군과 지배인을 비롯한 공작기계공장을 찾아가 경험도 배우고 하면서 부분품을 자체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대한국의 실용기술자를 기술훈조할 때에도 공장참모부의 일군들은 기술자들에게 들어가 제기되는 창작적인 의견들을 적극 지지해주었으며 어렵고 힘든 고비





